



권두칼럼

- 권두칼럼 1

정진택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임태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정진택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그린스쿨이 준비해온 『그린모니터』 제8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호에도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및 교육 성과와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을 풍성히 담고자 그린스쿨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했을 것입니다.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교수진 및 원생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전지구인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동력과 필연적인 부작용이었던 에너지와 환경의 결합과 조화가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와 전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한해 중 가장 더운 날의 기온 역시 예년에 비해 높은 폭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홍수의 위험이 급증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연중 가뭄 일수가 늘어나면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지는 면적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열띤 논란의 중심이 된 미세먼지 문제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모든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에너지원은 이제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에너지와 환경 간의 대척 구도를 극복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에너지원,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의 부흥이 주된 담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채택된 역사적인 파리협정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에너지·환경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와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새로운 에너지·환경 질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예견하여, 고려대와 KIST가 협력하여 설립한 그린스쿨은 2010년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환경 분야 융합 전문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술과 정책 부문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며,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진 및 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린스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임 태 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올 여름 유난히 날씨가 덥습니다. 지난 3개월 평균기온이 21.4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온도는 30년간 평균기온에 비해 1.1도가 높은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기온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6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전 세계 월평균 기온과 해양온도가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말하고, 아마도 올해가 기상관측상 가장 더운 한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기상관측상 가장 더운”이라는 형용어구는 관용어구처럼 매년 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자신이 앉아서 쉴 수 없는 그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제공할 나무를 심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문의 길은 스스로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사회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개혁을 통한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그리고 전력 가스 판매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정부계획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물려주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활용 그리고 전기/가스 에너지 판매 사업의 개방 이런 문제는 우리 생활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상시 조절 가능했던 기존 공급시스템에서 간헐성이 존재하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로 보완하는 공급시스템에서의 변화 그리고 판매 자유화를 통한 전력 및 에너지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소비행태는 크게 변화될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 공급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양식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수요와 공급에서의 변화는 별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공학과 정책의 융합교육을 통해 시스템 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그린스쿨에게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좋은 기회이자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4년간 묵묵히 이 길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온 그린스쿨 소속 교수님 이하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린스쿨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을 그린모니터라는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린모니터 8호의 출간을 위해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